

[사회]

3不 재검토·보고사 부분 허용 촉구

교총 대선 10대 교육공약 선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초청간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대입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철폐 등 각 정당 대선 후보에 이행을 촉구하는 10대 교육공약을 선정·발표했다.

교총이 발표한 10대 공약은 ▲초중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6% 확보 ▲대입제도 개선 ▲대학교육 자율화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및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이다.

또 ▲교장공모제 철폐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및 교권확립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전문적 교원단체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교총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3불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촉구, 대학 보고사는 부분 허용하고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 수준은 반영하며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논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각 대선 후보에게 10대 과제 이행을 약속받아 12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지금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교육적 고통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장수풍뎅이로 부농 꿈 일구는 순천 별량면 송계 중씨

"나는 '벌레 부자'... 내년 매출 2억원"

아름드리 조경수들이 뿔뿔이 들어선 순천 별량면 산지의 한 농장.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이름드리 벌을 꿈꾸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장수풍뎅이 아빠' 송계중(45)씨는 이곳에서 9년째 장수풍뎅이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우리나라 농업에 이끌어 나가는 꿈을 키우고 있다.



농업인 송계중씨가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자신의 농원에서 직접 사육한 장수풍뎅이 성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순천=위적라기자 jrwi@kwangju.co.kr

조경수를 키웠던 송씨는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톱밥에서 처음 장수풍뎅이 굵뎅이를 접했다. 어른 엄지 손가락만한 굵뎅이를 보고 기겁을 했던 송씨지만 이내 그 매력에 빠지고 말았다.

"호기심에 키운 굵뎅이가 멋진 벌을 드러내는 성충으로 탈바꿈했을 때의 그 감동은 키워본 사람만이 압니다. 게다가 알컷을 차지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승부를 펼치는 수컷들의 강인한 모습도 매력적이고요"

송씨는 각종 곤충 서적을 구입해 장수풍뎅이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책에 나온 단편적인 지식과 실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현실은 차이가 컸다. 농원 한 곳에 160㎡ 규모의 실험동을 설치해 본격적인 사육에 뛰어들었다. 처음 3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노후가 부족해 하루 아침에 애벌레가 몽땅 죽어버리기도 했고, 판로가 없어서 애써 키운 장수풍뎅이를 바라보기도 하기도 했다.

"요즘에 애만 곤충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지만 처음에는 '벌레로 무슨 돈을 벌겠느냐?'는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9년간 노력해 사육 성공

애완곤충 기르기 붐 따라

주문 폭주 '즐거움 비명'

수풍뎅이 사범 사육농가로 선정돼 지원받은 돈과 사비를 털어 661㎡ 규모의 사육동 2동을 신축했으며 5천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영업파트를 새로 만들어 상반기에만 5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장수풍뎅이 15만 마리·사슴벌레 5만 마리를 키워 2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애완곤충을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의 정서와 생태계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애완곤충을 키우려는 어른들이 많이 늘었는데, 굵뎅이가 몸에 좋다고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수풍뎅이 먹이로 사용하는 켈리의 곡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농가의 부담이 크고,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받기 어렵다. 조합을 구성하거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단체활동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도 송씨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 성공으로 변화가는 장수풍뎅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희망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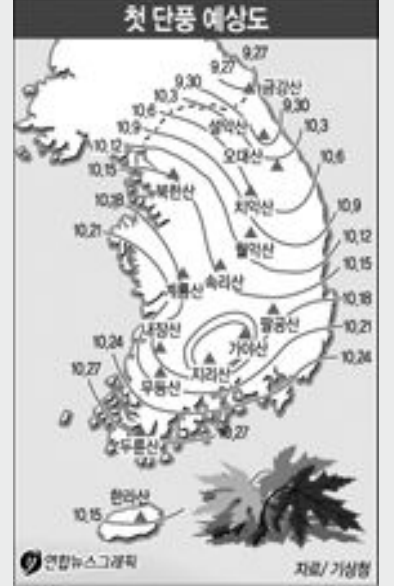
"친환경 농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곤충사육에 필요한 물품의 개발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곤충산업'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순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리산 단풍 10월 15일 절정

무등산 11월 1일

내장산 11월 5일



올해 단풍은 평년보다 2일 정도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다음달 6일까지 지리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겠다"며 "남부 내륙지방의 경우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2일가량 빨라지겠다"고 밝혔다.

올해 단풍은 지리산 10월6일을 시작으로 ▲내장산 10월15일 ▲무등산 10월20일 ▲두류산 10월26일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월15일 지리산에 절정을 이룬 단풍은 ▲무등산 11월1일 ▲내장산 11월5일 ▲두류산 11월8일째 온 산을 붉게 물들일 것으로 보인다.

단풍은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큰 양지에서 아름답고,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시작된다. 기상청에서는 산 전체면적의 20% 가량이 물 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로 80%가량 물이 들었을 때를 절정기로 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Table with 4 columns: 산이름, 첫단풍, 절정기, 해발고도 (m). Rows include 내장산, 지리산, 무등산, 두류산.



김덕령 장군 41주기 제향행사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목숨을 바쳐 싸운 충장공(忠壯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덕령(金德齡) 장군 제 41주기 제향행사가 14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충장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우진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 인순일 시 교육감·김한규 북구 부구청장, 김양근 유족보존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광주시 북구청)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Contact info: (062)220-0524, FAX: 227-9500.

상속한정승인공고. 광범자(700320-26240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신규 폐차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고가매입. 미성폐차산업(주) 1566-8200. Services include trade-in for used vehicles and construction equipment.

제35기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Financial statement for Daehan Sangho Savings Bank, 2007.9.15. Balance sheet showing assets and liabilities.

공시최고. Real estate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agen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당뇨병' (Diabetes) treatment.

당뇨병. 영터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췌장 내 '랑게르한스(Langerhans) 랑게르한스라는 세포가 발견한 물질'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